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철저 군산시, K-문화체험 '호응'

익산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익산시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카눈' 복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정현을 시장은 "태풍피해에 맞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중 삼중 대비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10시에 태풍경보 발효되자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현장 조치와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동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 현재까지 본청과 29개 읍면동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태풍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과 안전조치 이행 등 선제적 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침수 및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함께 강풍에 취약한 옥외 간판, 공사장 대형 크레인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모두 끝마쳤다.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일제히 현장을 돌며 강풍, 호우 시 위험사항에 대비하고 태풍 대비 배수시설 9곳과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20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이동식 차수벽을 전진배치



익산시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카눈' 복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을 대비해 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경찰·소방서·군부대·자율방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현장 대응체계를 공유하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과 선제적 주민대피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정현을 시장은 "태풍의 위력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익산에 머무는 2천여 켈리 대원들이 태풍 영향권 속에서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을 실내로 전환해 운영한다.

한국 전통문화 공연 등 사전 프로그램 등과 함께 각국 대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전통의상을 입고 고유문화를 세계 청소년에게 알리는 등 장기자랑을 실내에서 진행한다.

정 시장은 "세계켈리 참가자들이 11일 폐영식과 K-POP 콘서트 관람을 위해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사전예찰 활동으로 시민 안전 대비

군산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복상에 따라 사전예찰 활동으로 시민 안전을 대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의 복상으로 이날 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앞서 지난 8일부터 27개 읍면동 전 지역에 사전예찰 활동을 지시했으며 시내건물, 입간판, 옥상 적치물 이동조치, 가로수, 수목전도, 가옥주변 위험 수목들에 대한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재해위험지역(산사태 등) 등 예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곳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선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출항 관리 철저, 어선 항구 대피 및 해안 철수를 권고했다.

또 9일 오후 6시부터 은파호수공원(수변데크, 물빛다리, 제방, 별빛다리, 수변무대, 리츠프라자호텔, 자전거문화센터, 조정휴게소)에 대한 14개소



군산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복상에 따라 사전예찰 활동으로 시민 안전을 대비하고 있다.

진입 안전통제라인을 설치했으며, 군봉·월명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 출입로 및 15개소(군봉5, 월명10) 출입통제, 경포천 산책로 및 언더패스 출입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을 주요 설비의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강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태풍 카

눈은 '강풍'으로 돌발상황 발생위험이 높은만큼 철저한 대비와 사전예찰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재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와 피해우려 지역의 적극적인 출입통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켈리 대원 200여명에 군산·한국 문화 소개

군산시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켈리' 조기 퇴영으로 군산시에 머물게 된 이집트, 에콰도르 켈리 대원 200여명에게 다양한 K-문화체험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엔 군산을 방문한 이집트, 에콰도르 등 200여명의 켈리 대원은 2박 3일 동안 군산에 머물며 남은 기간을 보내게 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낮 시간동안 부안에 있는 고사포해수욕장에서 다양한 해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복귀 후 오후에는 호원대학교에서 준비한 K-문화체험을 통해 군산과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K-문화체험은 K-푸드, K-뷰티, K-스포츠, K-공연의 4개 부문으로 김치담그기, 헤어컷·네일 아트, 호신술·태권도 체험 및 뮤지컬 공연 등 총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이 문화 사절이 되어 군산 방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군산과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K-문화체험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의 휴식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 10일 근대역 사박물관과 청소년자치배움터(자뎡)에서 영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공무원 및 통역봉사자를 활용해 체류 기간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통을 넘어 국가별 문화나 관습까지 고려하는 섬세한 지원을 실시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과 보조 도우미 3명이 매주 2회, 1시간씩 치매환자 보호자 및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소리곤충에 대해 알아보기 △소리 곤충 집 만들기 △소리 곤충 먹이 기르기 △곤충 목걸이 선물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행복감과 우울감 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소리곤충 교감치유' 성료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소리곤충(쌍벌귀뚜라미, 여치)을 활용한 교감치유 프로그램을 10일 마쳤다.

원광대학교 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 교수연구팀과 협력하여 소리곤충을 활용한 긍정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8월 10일 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동물매개심리상담사 1명

과 보조 도우미 3명이 매주 2회, 1시간씩 치매환자 보호자 및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소리곤충에 대해 알아보기 △소리 곤충 집 만들기 △소리 곤충 먹이 기르기 △곤충 목걸이 선물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행복감과 우울감 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제5대 정명채 명예농업시장 위촉장 수여

익산시는 10일 제5대 명예농업시장에 한국농어촌 복지포럼 대표인 정명채 박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정부의 농정 공약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업부문에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지역에서 명예농업시장을 수행하며 농업인에게 높은 인지도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농촌현장포럼 및 미래농정자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농업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등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부 농업정책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익산 농정의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잦은 폭우와 폭염으로 농가 경영은 불안정해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집중호우 침수피해자 새차구입시 취득세 면제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0일 지난 집중호우 침수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차량 폐차 후 새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차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순해증명서(대한순해보험협회 발급)를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피해차량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차량, 기계장비의 말소등록 시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익산영등시립도서관 북강스 피서지 '인기'

익산영등시립도서관이 독서활동으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강스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도서관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야간에 자녀동반 가족단위 이용자들이 늘어 주말 대비 이용객이 약 30% 증가했다.

특히 여름방학 독서교실, 도담도담 어린이 문화교실에서 진행되는 3D펜, 유튜브 교육, 공예, 미술 등 다양한 체험들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은 늘어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9월 독서의 달과 익산시 북페스티벌 행사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다해 특별한 분위기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무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